

\* 부의 취함에 있어 도리를 지켜야 한다.  
 타고난 얼은 복 외에도  
 후천적인 노력을 더해야하고  
 또 널리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한다.  
 - 108 자재어중에서 -

# 세원소식지

[www.sewonsa.com](http://www.sewonsa.com)

\*펴낸이 : 정 운  
 \*편집인 : 유 진  
 \*펴낸곳 : 세 원 사  
 \*인 쇄 : 형제인쇄·광고

## 참회 이야기

정 운 (세원사 주지)

만일 죄를 지었다가 깨끗함을 구하려거든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 미래 세상에 반드시 나쁜 과보가 있음을 믿고 크고 무서운 생각을 내어 참회해야 한다. 마치 사람에게 불이 붙어 머리가 타고 옷이 탈 때 빨리 끄려고 서두르고, 불을 끄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한 것과 같다. 죄를 저질렀을 때도 이와 같이 해야 하며, 즉시 참회해서 빨리 죄를 없애야 한다.

『불교성전』 392쪽 「금강명최승왕경」

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생각하고 되짚어보면서 살아가는 삶과, 그냥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삶은 다릅니다.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바다 밑바닥에서 백 년에 한 번 고개를 수면 위로 내밀 때, 그 넓은 바다 수면 위를 동동 떠다니던 나무판자의 구멍에 머리를 쑥 끼워 넣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난다는 것은 거북의 그 확률보다 더 희귀하다고 경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귀하고 드문 존재입니다.

아무리 장수 시대라 하지만 백 년을 잘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유년기를 보내고 진학을 하고, 직장을 갖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일생의 황금 같은 시기를 바쁘게 보냅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지식을 구하고, 훌륭한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더 노력해서 부와 명예를 쌓는 일도 좋지만, 자신의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의 행위가 선하였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돌아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늘 바빠 몸과 마음을 움직였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살아왔는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가치는 없는

살면서 나쁜 짓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알게 모르게, 혹은 어쩔 수 없이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그릇된 행



[www.sewonsa.com](http://www.sewonsa.com)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세원사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많은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동(악업)을 하고 난 뒤의 마음가짐입니다. <불교성전>에서는 말합니다.

**죄를 지었다가 깨끗함을 구하려거든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  
미래 세상에 반드시 나쁜 과보가 있음을 믿고,  
크고 무서운 생각을 내어 참회해야 한다.**

『불교성전』 392쪽

이 구절을 음미해볼까요?

가장 먼저, '죄를 지었다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는 자신의 행동을 살펴서 그것이 죄인 줄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죄라는 말보다 '악업'이라는 말이 더 불교적이기는 합니다. 그것이 그릇된 것인 줄 알면서도 저지른 것, 그래서 '업'이라는 말에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행여 몰랐다 하더라도 행위를 저지르고 난 뒤에 살펴보아서 자신과 주변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 서둘러 반성해야겠지요.

이제 '깨끗함을 구하려거든'이라는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은 '참회하기를 원한다면'이라는 뜻과 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음을 알면서도 그 뒷감당이 어려워 "아, 몰라! 어찌란 말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어."라고 강짜를 부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딱한 사람일 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자신과 다른 이에게 나쁜 행위만을 하고 가려 합니까. 그러니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아서 그것이 죄(악업)인 줄 알면 서둘러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악업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라는 구절이 마음에 나오지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부끄러운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경전에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수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이 반드시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친아들인 라훌라에게도 "잘못을 저질렀거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얻어진 그릇처럼 아무런 것도 담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아무리 수행하고 기도해도 공덕이 하나도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래 세상에 반드시 나쁜 과보가 있음을 믿고'라는 말은 인과법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반드시 따른다는 이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업을 지으면 즐거운 과보가 따르고, 악업을 지으면 괴로운 과보가 따른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압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이 당연한 이치를 잊어버립니다. 눈앞의 이익에 어두워서 '나'와 '내 것'에만 집착하여 악업을 짓고 맙니다. 악업을 지을 때면 이것이 언제라도 괴로움이라는 과보를 내게 가져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괴로운 과보가 찾아오면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야 하는가?"라며 힘들어하고 울부짖습니다. 뒤늦게라도 자신의 행위가 악업(죄)인 줄 인지했다면 언제라도 반드시 그 행위는 괴로움을 불러올 것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괴로운 과보는 1시간 뒤에 찾아올 수도 있고 1년 뒤, 10년 뒤에라도 찾아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애 어느 순간에라도 찾아옵니다.

따라서 그 괴로운 과보가 얼마나 무서울지 알

아차했다면 서둘러 참회를 해야 합니다. ‘크고 무서운 생각을 내어 참회해야 한다’라는 불교성전의 구절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건 나중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서둘러서 참회해야 하니, ‘사람에게 불이 붙어 머리가 타고 옷이 탈 때 빨리 끄려고 서두르고’라는 불교성전의 구절은 그 다급함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자신의 몸과 옷에 불이 붙었는데 한가하게 구경할 사람은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불을 끄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아서 악업이라면 그만큼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라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꼭 짚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참회를 강조하다 보니 “참회만 하면 내가 저지른 모든 죄가 다 사라진다는 말입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경전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시 참회해서 빨리 죄를 없애야 한다’라고 <불교성전>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회는 업장을 없앤다고 말하는 것이다.**

『금광명최승왕경』 「멸업장품」

업장을 없애는 것이 참회라는 말입니다. ‘업장’에서 ‘장’이라는 말은 ‘장애물, 걸림돌’이라는 뜻이니, 다시 말하면 사람이 새로운 업을 짓는데 걸림돌, 장애물이 되는 것을 ‘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전에서 누누이 참회를 강조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아무리 커다란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그 잘못에 연연해서 새로운 선업을 짓는 일에 게을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악업/죄)에 따른 괴로운 과보는 자신의 책임이니까 담담하게 받아들이되, 거기에 자신을 얽매어서 새로운 선업을 짓는 일에 소홀하

거나 수행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그것은 그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치는 일입니다.

따라서 참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회를 한 뒤에 다시 새로운 업을 지어야 합니다. <금광명최승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  
업장을 능히 없애고 영영 청정함을 얻으리니,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첫째는 샅된 마음을 내지 않고 바른 생각을  
성취함이요,**

**둘째는 매우 깊은 이치에 비방하는  
마음을 내지 않음이요,**

**셋째는 초행보살에서 온갖 지혜의 마음을  
냄이요,**

**넷째는 모든 중생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것이 네 가지 법이니라.**

『금광명최승왕경』 「멸업장품」

네 가지 법을 실천하여 길이 청정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불교는 우리를 열심히 살도록 촉구합니다. 그저 마음을 텅 비우고 무념무상으로 살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난 잘못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서둘러 참회하면서 자신과 이웃, 세상을 향해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행동하는 보살이 되도록 촉구하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이왕이면 자신에게 뚜렷한 존재가 되며, 이웃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있어 세상은 살만해집니다.

오늘, 참회하고 발심하며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가꾸갑시다. ☺



## 세원소식

### 후원금 현황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지출	
이원호	50,000	임석진	50,000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50,000
이주연	20,000	한명현	30,000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300,000
부성보	50,000	광명전기	50,000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00,000
유상숙	50,000	이건립	20,000		
박명호	30,000	이정옥	50,000		
양정하	30,000	이경화	50,000		
오희순	30,000	김중성	50,000		
강상훈	20,000	곽신애	20,000		
유성윤	30,000	형제인쇄.광고	30,000		
이용렬	50,000				
강진아	20,000				
최부호	50,000				
김규태	20,000				
권송은	20,000				
유홍주	30,000				
이영구	50,000				
최창	50,000				
이선엽	30,000				
조명연	50,000				
명청소년소아과	50,000				
박인자	50,000				
김현준	10,000				
유정현	10,000				
유진스님	20,000	계	1,170,000	계	850,000

여러분의 후원금은 청소년 교화사업에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은 2024년 2월 6일~2024년 3월 7일까지 입금된 것입니다.

<351-0988-2053-63> 농협(세원아정) 후원금 통장입니다. 원하시는 분 입금 부탁드립니다.

위 내역은 시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자부담 지출입니다.



####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매주 화요일~목요일 : "사랑의교실 선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 "검정고시학습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토요일 : "청소년자원봉사" "검정고시학습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 ◆ 매주 화요일 : "초콜릿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수요일 : "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 "전통다도 체험하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토요일 : "드림교실" "기타교실" "댄스동아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 매주 화, 목요일 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